트럼프 "48시간 남아"…폭격 영상 올리고 "군 지도부 제거"

네타냐후 "우리는 계속해서 부술 것"
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준비

미국과 이란이 4일(현지시간) 서로를 향해 '지옥을 보여주겠다'며 위협을 주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을 이틀 남기고 양측 모두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모양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전날 이란에서 격추된 미 전투기에 탑승했던 실종 미군을 누가 먼저 찾느냐를 놓고 이틀째 수색 경쟁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이란에 (미국의 종전 요구안에) 합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까지 열흘을 줬던 때를 기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합의 시한이 오는 6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이틀 뒤 종전 협상을 이유로 닷새간 공격을 유예한 뒤 시한을 다시 열흘 연장한 바 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 폭격 영상을 올리고 "이번 테헤란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군을 형편없고 현명치 못하게 이끌어 온 군 지도부 다수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석유화학 단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주요 에너지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국방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했다.

이란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란군 군사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알안비야 사령부의 알리 압둘라히 알리아바디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의 기간시설이 공격받는다면) 지옥의 문이 당신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탐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만약 적대 행위가 고조된다면 지역 전체가 당신들에게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며 "이란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환상은 곧 당신들이 빠질 수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5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과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경고'를 일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 재무부 건물과 석유시설, 발전소, 담수화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교황, 부활절 성야 미사…"평화와 화합 자라나길"

이란·우크라 전쟁 관련 언급한 듯

레오 14세 교황이 첫 부활절을 앞두고 열린 성야 미사에서 전쟁으로 분열된 세계에 평화와 화합을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부활절 성야 미사에서 "부활절의 선물인 화합과 평화가 전 세계 곳곳에 자라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인간성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했다.

교황은 "불신과 두려움, 이기심과 원망이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고, 전쟁과 불의, 고립을 통해 서로 간 유대를 끊어놓고 있다"며 "이런 장애물에 마비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종려주일 미사에서도 교황은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전쟁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교황이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미국의 고위 관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도 모임을 주관하면서 "자비의 가치가 없는 이들에 대한 압도적인 폭력"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교황은 부활절 당일인 5일 오전 성베드로 광장에서 야외 미사를 집전한 뒤 전 세계를 향한 축복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푸드 쿠킹 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이 요리를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고추장 더 넣어도 되나요?"…LA서 재현된 '폭군의 셰프' 속 한식

비빔밥·된장국·갈비찜 등 시연

"여기, 김치 먹어본 사람 있나요? 백김치도요? 와, 여러분 전부 K-푸드 전문가네요."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푸드 쿠킹 클래스'에 30명 남짓한 참가자들이 앞치마를 매고 모였다.

참가자들의 인종도, 연령대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K-푸드, 한식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주제로 삼아 드라마 속 한식 장면을 함께 보고, 셰프의 영어 설명과 함께 직접 조리 과정을 지켜본 다음 간단한 단계는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폭군의 셰프'는 미슐랭 셰프가 조선시대에 떨어지면서 폭군에게 매일 산해진미를 만들어주는 내용의 tvN 드라마로, 지난해 큰 인기를 끌어 넷플릭스 비영어권 주간 1위를 차지했다.

퀴진케이 셰프 3명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수라간 숙수 차림으로 앞에 나서 갈비찜과 된장국, 비빔밥 조리법을 시연했다.

문화원 내 공간에 전문 조리시설이 없어 전 과정을 시연하기보다는 순서를 알려주고, 나물을 볶거나 국을 데울 때만 약한 불을 이용해 요리를 완성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드라마 속 음식을 만들어보며 연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직접 맛보며 즐거워했다.

이들은 K-푸드가 이미 LA에서도 익숙한 음식이며, 자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 메건 보워스-라리비에르는 "평소에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다"며 "이탈리안 음식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한식이다. 특히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날 만든) 갈비찜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날 시연을 맡은 서하람 한국술집 안씨막걸리 셰프는 "일반인 참가자들의 K-푸드 이해도가 생각보다 높다"며 "드라마도 보신 분들이 많고,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추장은 원래 조리법보다 맵기를 줄여서 가져왔는데, 이틀 전 조리학과 학생들도 그랬고, 사람들이 고추장을 계속 추가해서 먹더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LA한국문화원과 CJ제일제당이 함께 개최했다. 지난 2일에는 LA하버칼리지 조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날은 일반인을 상대로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지구보다 달에 더 가까이 갔다…'아르테미스 2호' 순조로이 비행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가 이제는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중하라, 우리는 달로 간다"며 "'아르테미스Ⅱ' 우주비행사들이 목적지(달)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NAS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미 서부시간 기준) 현재 달까지의 거리는 11만 마일(17만7천㎞)이다.

발사 5일 차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달의 영향권에 진입한다. 이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지점을 뜻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탑승한 오리온 캡슐의 도킹용 해치 너머로 보이는 달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는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순조로이 비행 중이다.

남은 중요한 임무는 달 뒤편을 돌며 지금까지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달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아르테미스Ⅱ'는 지구에서 25만2천757마일(약 40만6천773㎞) 거리까지 멀어지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선 인류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연합뉴스